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일 금요일 (음 8월 2일) 제16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인구절벽 눈앞에 현실로

도내 초중고 학생수 매년 줄어든다

전북지역의 학생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다.

1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년 전북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도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9.3명, 중학교가 27.4명, 고등학교가 28.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가 0.2명, 중학교가 1.3명, 고등학교가 0.3명 감소한 수치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폭이 가장 커 학급당 학생 수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2.2명, 중학교 12.2명, 고등학교 12.7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3명, 0.9명, 0.3명 감소했다. 학급 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25만 3,388명으로 전년 대비 7,634명(2.9%)이 감소했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년 감소 폭(2.4%)보다 그 폭이 확대됐다.

초등학교는 9만7,895명으로 2,365명(2.4%), 중학교는 6만2,444명으로 5,521명(8.8%), 고등학교는 7만449명으로 1,095명(1.5%) 감소했다.

중학교의 경우 밀레니엄 베이비(2000년 출생자)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유출 학생 수(2만3,805명)에 비해 새로 진입한 1학년 학생이 1만7,985명에 그쳐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입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폭은 2.6%에서 1.5%로 다소 완화됐다.

초중고와는 달리 유치원은 2만6,389명으로 1,330명으로 5.3% 증가했다. 해당 학령인구의 소폭 증가(176명)와 취원을 증가(2.7%p ↑)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성 교원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은 전체 관리직 교원의 33.2%인 449명으로, 초등학교 364명(46.0%), 중학교 61명(19%), 고등학교 24명



'세계 유일' 흰색 상사화 만개 고송도치의 섬 부안 위도섬에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가 만개했다. 위도상사화는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화엽불상견(花葉不相見)'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위도해수욕장 인근 2만㎡ 동산에 군락을 이뤄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최고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학급당 학생 수 초등 19.3·중등 27.4·고교 28.2명 전년보다 0~1명 감소... 중학생 감소폭이 가장 커 학령인구 감소가 주원인... 여성 교원 비중은 늘어

(10.1%)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의 증가폭이 6.4%p로 가장 컸으며, 중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고등학교는 2.4%p로 늘어나는 등 관리직 여성 교원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학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초·중등학교(각중학교 포함)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5,560명(전체학생 대비 2.2%)으로 조사됐다.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후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95% 차지)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4.1%, 중학생 1.6%, 고등학생 0.9%로 초등학교가 전년 대비 0.8%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0.2%p, 0.1%p 각각 늘었다. 학업중단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5학년도 전체 초·중등학교 학업

중단자 수는 1,381명(전체학생 대비 0.5%)으로 전년 대비 156명 줄었다. 세부하면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0.3%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0.4%, 1.2%로 전년 대비 각각 0.1%p씩 감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등을 통해 2010학년도 0.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전국 각급 2만개 학교 및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주요 교육지표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조사해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 20만2663원

지난해보다 12.2% ↑
백화점 25만3961원
전통시장 17만8천원

제사용품 중 채소값 ↑
그중 시금치값 폭등

전주에서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지난해보다 12.2% 오른 20만2,663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통시장 3곳과 백화점 1곳, 대형마트 7곳, 중소형마트 13곳 등 모두 24곳에서 올해 추석 제사용품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이 25만3,961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 20만4,166원, 중소형마트 20만3,184원, 전통시장 17만8,321원 순이었다. 가격이 가장 비싼 백화점과 가장 저렴한 전통시장은 비용이 14.5% 차이가 났다. 차례 상에 오르는 제사용품 중

유독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시금치(400g)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43.6% 폭등한 1만2,835원이어서 '금치'라고 불렀다. 폭염과 일사적 출하량 감소로 인해 가격 인상 폭이 워낙 커서 아예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대파(1kg)는 지난해보다 10.6% 오른 3,846원에 거래됐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미른 가뭄으로 과일류도 가격이 경증 뛰었다. 햇사과(300g) 1개 가격은 8.8% 인상된 2,205원, 햇배(600~700g) 1개 가격은 17.1% 오른 3,001원이었다. 쇠고기 국거리(100g)와 산적용(100g)은 각각 19.1%, 22.6% 오른 5,221원, 5,164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올 추석 차례상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나섰다"며 "여러 곳 가격을 비교해 보고 현명한 구매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메인 포스터 공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1일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의 포스터는 하단에 자유의 여신상을 비롯해 피사의 사탑, 에펠탑 등 세계 곳곳의 명소를 이미징했다. 세계 명소에서 다양한 악기와 음표가 퍼져 나가는 모양을 표현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포용성과 다채로움을 담았다. 또 새롭게 디자인된 전주세계소리축제 영문 폰트를 선보여 기존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소리축제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뉴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眞

명품특선 '진'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진안고원에서 정성어린 손길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 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의 농·특산물을 선물하세요.

청정진안의 얻을 수 있는 품질관리와 생산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창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석 선물 축제

진안고원
JINAN GOWON

구매문의: 진안군전자상거래유동사업단 063-433-7247 전북진안군진안읍진우로1156 한방약초센터
보다 자세한 제품은 진안군 전자상거래 '마이산 정기달은 소령물(www.jinanshop.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